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윤*원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하와이
파견대학	Hawaii pacific university	파견기간	2015가을학기 - 2016봄학기
귀국여부	2016. 07.13 귀국예정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파견 대학은 하와이 호놀룰루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다른 캠퍼스들까지 합치면 제법대학다운 규모를 갖추고 있고, 시설도 한국에 있는 대학교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하고 수업을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는 그냥 좀 집없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다른 캠퍼스의 경우에는 자연과 가까운 하와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수업	수업들은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전공 정원 12명이 들었던 수업같은 경우는 시간이 충분했으므로, 토론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교수님들은 준비가 항상 철저하게 되어있었으며, 과제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가 되어 전혀 문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업에 있어서는 너무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더 흥미롭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하와이 퍼시픽 대학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은 그냥 만족스러웠지만 어떤 학생들은 따로 오리엔테이션비를 납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장자와는 그렇게 연락할 일이 많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항상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는 아시다시피 하와이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항상 30도 안팎의 기후가 유지되고 저녁이 되면 무역풍의 영향으로 겨울 시즌에는 바람이 조금 많이 불니다. 비 내리는 날은 많지 않으며,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산없이 생활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안전	미국에 있는 다른 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밤늦게 돌아다녀도, 별로 문제가 없었고, 사람들도 항상 친절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v) 기타() 저 같은 경우는 순천향대에서 같이 파견나갔던 친구와같이 집 계약을 해서 거주를 했습니다. 버스로 학교까지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마키키 지역에서 거주를 했어요. 집값이 하와이는 전반적으로 비싸다고 알고 있지만, 정말 그 집값은 엄청나게 비쌌고, 그것만 빼면 문제될 점은 없었습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 돈을 아끼기위해서는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게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 보통 간단하게 밥을 먹을때는 학교 근처에 있었던 1달러 짜리 무수비를 먹기도 하고, 가끔은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교통	통학은 주로 버스를 타고 했습니다. 버스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버스패스 돈만 내면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15분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었고,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왕복으로 계산한경우 200만원정도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80만원대	
숙소	한달에 900\$	
식비	한달에 700\$ 정도	
교통비	두학기 총합쳐서 80\$	
책값	첫학기에만 책을 샀고, 600\$	
기타1	2000\$	쇼핑, 외식
기타2		
기타3		
합계	22,080\$	약 26,496,000 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딱히 출국전에는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짐을 빼면서 하와이를 떠나면서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가져왔던 옷가지들이 너무 애물단지가 되어서 버린것들이 많습니다. 출국전에 비자문제같은 것들만 잘 신경쓰면 교환학생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하와이로 교환학생을 가신다면 한국에 약국에서 파는 바퀴벌레약 치약처럼 생긴거는 두, 세개 정도 준비해가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콘센트를 이용하실거라면, 컨버터 3개 4개정도는 필요할거라고 생각이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솔직히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좋았던 생활들을 전부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돌이켜와야 한다는 생각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곳에서 보냈던 시간들 경험들은 가치를 매길수 없을 정도로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바퀴벌레들을 마주했던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비싼 물가 덕분에 좀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 일상들에 적응이 되고 나니까, 모든게 아름다웠습니다.

바닷가들...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주하기 어려운 그런 바닷가들이 일상 눈앞에 항상 펼쳐져 있었습니다. 심심하면 바닷가에 놀러가서 수영도 하고 태닝도 하고, 저같은 경우는 쇼핑을 좋아해서 쇼핑도 많이 했습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지상낙원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저는 친구들도 나름대로 많이 사귀었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낸것 같습니다. 의외로 학교 수업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한두달을 지내고 나서부터는 어렵지 않게 수업들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점점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학생으로 자라가고 있는것을 어느순간부터 알아차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같이 순천향대에서 파견을 나갔던 친구들, 정말 너무나도 큰힘들이 되었었어요. 힘들고 지칠때 항상 같이 이야기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서로 의지도 많이 되었구요. 그리고 새롭게 만났던 하와이에 있는 친구들도 너무나 친절하게 저한테 잘해주었고, 정말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하나(ohana) 정신, 모든 사람들이 가족처럼 친구처럼 여기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하와이에서 시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모든게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가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한달처럼,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고, 그 빠른 시간들사이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전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조금 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것 같습니다. 분명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달라지고, 더 많은것을 배우고, 더 많은것을 경험하고 난 지금에서야 다시한번 무엇을 해야할지, 무슨직업을 목표로 준비를 해야할지 조금 혼란스러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조금 더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은 조금 더 생긴것 같네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



와이키키해변의 모습



하와이의 알로하정신



와이마날로 비치의 모습



하나우마베이의 전경



라니카이 비치의 모습